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리더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선교 활동 보고

###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

루이빌 - 마음이 있는 곳이 집이라면, 수 앤 페어먼의 마음은 여러 곳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집사이자 사역장로인 수 앤에게 고향집은 펜실베이니아의 뉴 월밍턴입니다. 여기에는 뉴 월밍턴 장로교회가 있고 수 앤 가족이 해외 선교 사역자로 일하는 동안 이 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사이족 사이에서 생활하고 일했던 케냐 남서부도 그녀에게는 언제나 집일 것입니다. 페어먼은 그곳에서 문맹 퇴치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두 딸을 키웠습니다. 나이로비에 있는 마더 테레사 고아원에서 25년 가까운 세월 중 14년을 선교 봉사 활동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케냐 남서부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시간동안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녀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 앤에게는 현재 '세낭고 온 더 그린'이라는 장로교 평생 돌봄 커뮤니티가 집입니다.

이 곳으로 이사하려 보니 재정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친구 데이비드 도슨 목사(세넵고 노회 전 총무)와 점심을 먹었는데, 그가 '연금국의 소득과 주거지 보조금을 신청해보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장로교 연금국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은퇴 목사와 선교 사역자를 돕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수 앤은 연금국에 전화를 했고 곧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보조금은 부분적으로 연례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 덕에 가능했습니다. 이 헌금은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과 소수 인종 공동체 인재를 길러내는 장로교 연계 학교와 대학에 똑같이 분배됩니다.

수 앤이 사모로서, 선교사로서 케냐에서 섬긴 대부분 기간은 [전 남편]이 사역으로 부름받았던 것이었기에, 연금국의 혜택 적용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연금국이 제공하는 온전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1998년까지 연금위원회의 온전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연금국이 다양성, 평등, 포용에 더욱 헌신하고자 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문호를 넓혔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 앤과 같이 수년간 온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교회를 섬긴 연금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진심으로 일한 교회 사역자들은 그들의 노고에 대해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수 앤이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기타 어려움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전직 교회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헌금은 이들의 삶과 사역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에 쓰입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모으면, 큰 힘이 됩니다.

### *굿명핍겜슬니낫*

*사랑을 주시고 항상 기쁘게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국내외에서 섬김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곁에 계셔 주소서.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에 내는 저희의 헌금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깊은 사랑과 환영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